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산란한 마음과 믿음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에서 끊임없이 생기를 돋우어주는 원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 제5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너희는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요한 14,1)라는 예수님의 권고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이 산란하여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복음은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요한 14,1)는 말씀으로 처방전을 내려 주십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길이요, 답입니다.

믿음이 약해졌을 때, 토마스의 말처럼 우리도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요한 14,5) 길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믿음이 약해졌을 때, 필립보처럼 말할 수도 있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요한 14,8)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의심만 하는 것이지요.

하느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때, 신앙인으로서의 우리는 마음이 산란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의심하게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지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은 믿음을 더하는 기도를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복음 말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요한 14,12) 이는 교회의 모든 활동과 신앙인으로서의 존재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움직이게 되고 활동하게 되고 성취하게 된다’는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사도 6,1) 교회공동체도 인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불평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도 공동체의 산란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산란한 상황도 그 해결책은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십시오.”(사도 6,3) 교회 공동체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은 재무능력과 중재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사도 6,3),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사도 6,4)입니다. 이 또한 교회공동체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은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제2독서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또한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입니다.”(1베드 2,4;2,7)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건설하는 “살아있는 돌”(1베드 2,4)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교회는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은 오히려 삶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결국 산란하여 진다는 것 즉, 방향을 잃게 되고, 갈등이 증폭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심만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서는 선택된 값진 돌”(1베드 2,4)이심을 믿음 안에서 받아 들여서 영적인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하기에 “여러분은 선택된 겨레이고 임금의 사제단”(1베드 2,9)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의 조직사회로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영적인 집”(1베드 2,5)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1베드 2,9)임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의 근원적인 가치와 바탕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신앙인으로서의 개인이나 공동체가 “마음이 산란한 이유”는 바로 “믿음”의 부족임을 인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요한 14,6) 우리는 이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신앙인이자 신앙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영해 본당 이희복 미카엘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제5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넉넉한 집을 소개하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영적인 길을 걷는 사람은 항상 사랑의 삶에 자신을 맡기면서 많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 진리, 생명으로 초대합니다. 이 시간을 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깊이 감사드리며 전례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34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본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저희 안에 파스카 성사를 이루시어, 거룩한 세례로 새로 난 저희가, 하느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사도행전 6장 1절-7절

안 내 : 참된 신앙 공동체에서는 어떤 일이든 하느님의 소명이 됩니다.

묵 상 :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불림 받은 사람은 기도와 말씀 봉사에 전념하고 봉사의 직무를 맡은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받아 타인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공동체의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소명을 받았고 그 소명은 이 땅에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리라는 하느님의 꿈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화 답 송 :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제2독서 : 베드로 1서 2장 4절-9절

안 내 : 영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는 데서 시작됩니다.

묵 상 : 우리에게는 귀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는 영적인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비바람에 쓰러지는 집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집은 세상 거친 풍랑을 견딜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에 우리 각자의 돌을 하나씩 올려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 건설합시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14장 1절-12절

강 론 : ‘산란한 마음과 믿음’(1-2쪽)

예물준비성가 : 215번 ‘영원하신 성부’

영성체성가 : 500번 ‘평화의 하느님’

영성체 후 묵상

기다리는 이가 있는 사람은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지친 현실에서도 거친 역경에서도
발걸음을 향할 곳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집에는 우리 인류를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들,
사랑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어느새 아버지 집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 초대장을 건네시며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안에 계신다.”고….

공지사항

파견성가 : 134번 ‘거룩하다 부활이여’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3,03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해 주세요.



알 림

■ 대신학생 부모모임

- 일시 : 5월 20일(토) - 21일(주일)
- 장소 : 베들레헴 공동체

■ 제2차 가나혼인강좌(혼인 전 교리교육)

- 일시 : 5월 20일(토)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1인 1만원(2인 2만원)
- 대상 : 혼인을 준비 중인 남녀
(함께 참석해야 함)
- 신청 : 5월 18일(목)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북부지구 교사 연수

- 일시 : 5월 21일(주일) 13:00 - 18:00
- 장소 : 하망동 본당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초등부 교재, 두레판
- 대상 :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담당 수녀
- 참가비 : 1인 10,000원
- 신청 : 5월 18일(목)까지

■ 교구 수도자 모임

- 일시 : 5월 22일(월) 15:30 - 23일(화) 점심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본당, 공소(농민)사목 수녀,
출판 및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수녀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 신청 : 5월 17일(수)까지 사목국

■ 청소년 축제

- 주제 :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2코린 4,12)
- 일시 : 5월 28일(주일) 09:30 - 17:30
-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교
- 대상 :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
- 준비물 : 주일 미사 준비, 개인 식수, 운동화
- 회비 : 참가하는 모든 인원(교사, 봉사자 포함)
1인 10,000원(점심 제공)
- 신청 : 5월 15일(월)까지 사목국

■ 교구 사제피정

- 일시 : 5월 29일(월) - 6월 2일(금)
- 장소 : 농은수련원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5월 14일(부활 제5주일) : 울진 본당 (견진성사)

■ 2017 수취페 도미네 생활성가 음악피정

- 5월 14일(주일) 19:00 공검성당

■ 교구 성령기도회

- 일시 : 5월 22일(월) 20:30
- 장소 : 예천성당

■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모임

- 일시 : 5월 20일(토) 14:00
- 장소 : 서울 개화동 수도원
- 대상 :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 문의 :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 아씨시수녀들과 함께 수도생활체험 피정

- 일시 : 5월 20일(토) - 21일(주일)
- 대상 : 35세 미만 미혼여성(2만원)
- 문의 : 010-5313-0241 전베로니카 수녀

■ 2017 대구성령축제

- 주제 : 깨어나라 깨어나라(이사 52,1)
- 일시 : 5월 27일(토) 09:00 - 17:00
- 장소 : 성 김대건기념관
(대구대교구청 내 남산동)
- 강사 : 이창진(아폴레오)
삼성산 사랑의 성령봉사회 지도 신부
- 파견미사 :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 사제단 (미사 16:00)
- 문의 : 054-954-0951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 (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 4장

혼인의 사랑

사랑으로 혼인하기

131. 저는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사랑이 혼인 제도의 길을 따르면 그 어떤 위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그들의 결합은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그 안정성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성장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단순한 외적인 합의나 일종의 혼인 계약 이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가시적 형식을 특정한 의무와 함께 그러한 결합에 부여하는 결정이 그 결합의 의미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다른 이와 하나가 된다는 것에 진지함을 보여주며, 치기 어린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서로에게 속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드러내게 합니다. 혼인은 우리가 성장해 온 보금자리를 실제로 떠나 또 다른 강한 유대를 형성하여 다른 이에 대한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혼인을 순전히 사유물인 양 서로의 찰나적 쾌락을 위한 단순한 충동적 만남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제도인 혼인은 상호 의무와 사랑의 성숙을 보호하고 그 수단도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위한 맹세가 굳건하고 구체적이며 깊이 있게 되며, 또한 부부가 사회에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렇기에 혼인은 모든 시류를 뛰어넘어 지속되는 것입니다. 혼인의 본질은 인간 본성 자체와 인간의 사회적 특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혼인에는 사랑 그 자체에서 나오는 일련의 의무가 따릅니다. 이러한 사랑은 확고하고 아낌없이 주는 것이어서 미래라는 모험을 함께 감행할 준비를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132. 이러한 방식으로 혼인을 선택하는 것은, 무슨 일이 생기든 두 갈래의 길을 하나로 합치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결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식적인 서약이 중요한 것이기에, 이는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마냥 늦출 수만도 없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흔들림 없이 상대방에게 오롯이 내주는 것은 언제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며 과감한 모험이 됩니다. 그러한 약속을 거부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며 옹졸한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는 데에 이르지 못하며 그를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사회에 내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하면 다른 이들에게 자신들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제도화에서 생겨나는 모든 의무가 부여되고 또한 다른 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행되는 혼인으로 구체화된 사랑은, 두 사람이 아무런 망설임과 거리낌이 없이 ‘네’라고 응답하도록 해 주며 이를 보장해 줍니다. 이렇게 ‘네’라고 응답하는 것은 두 사람이 언제나 서로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며, 상대방이 매력을 잃어버리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쾌락이나 이기적인 이익의 기회가 새로 나타난다고 하여도 결코 서로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커지는 사랑

133. 우정 어린 사랑으로 혼인 생활의 모든 측면이 일치를 이루고 가족이 삶의 모든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은 넓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낌없는 말과 더불어 끊임없이 몸에 배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세 가지 말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강압적이지 않게 ‘해도 될까요?’라고 청합니다. 이기적이지 않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가운데 누군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가정은 평화와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데에 인색하지 말고 날마다 계속하도록 합시다. “가정에서도 때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자매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적절한 때에 하는 바른 말들은 날마다 사랑을 보호하고 길러줍니다.

- 다음에 계속 -



5월에 드리는 편지

정규석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라일락꽃 향기 그윽한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 성모님께 봉헌하기 위해
○○성당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전구자이신 어머니 마리아를 찬미하는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모님이 가신 순명과 겸손의 길을 따르려 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온 세상에 붉은 장미꽃이 가득한 5월이 오면 당신의 온유하신 사랑
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성모님은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
프랑스의 루르드에서, 그리고 멕시코의 콰달루페에서 가장 낮은 이들에게 나타나시어
위로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위태로운 신앙심으로 내딛는 걸음마다 금방이라도 쓸어 질것 같은 저
희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는 어머니의 속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가슴 벅찬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누명과
오해, 모함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못 견디게 고통스럽고 억울하여 주님께 눈물로 호소
하며 매달려보지만 그러나 주님은 너무도 멀리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계시는 주님이시기에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주시리라 믿지만 그 기다림
의 세월은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시며 가슴이 꿰뚫리시는 아픔을 겪으셨기에
저희들이 겪는 고난과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직접 겪으신 고통과 절망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저희들은 나약하고 어리석어 어머니의 따사로운 손길이 필요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련으로 아파하며 주님을 원망하는 저희를 보듬어 주시고, 먼 바다의
등대처럼 한줄기 광명의 빛을 비추시어 저희들을 이끌어 주소서.

가장 다정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이 밤에, 은총
속에 더욱 깊어진 사랑으로 어머니를 닮은 신앙인이 되리라 다짐해 봅니다.

매일 매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소서.

눈앞의 근심과 고통은 주님께 맡기고 성모님과 함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게 해 주소서.
억울하다, 원망스럽다는 말 대신에 떳떳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방황하는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성모님의 달콤한 자장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
어주소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어머니의 존재를 느끼게 해 주소서.

세상의 그 어떤 어머니보다 온유하고 자비하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시여!

당신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총과 위로와 보살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어머니께 의지하며 곳곳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어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소박하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지극히 순결하고 흠 없으신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어머니 사랑합니다!